

‘대세론’ VS ‘간판론’ VS ‘만형론’

〈정세균〉

〈추미애〉

〈정대철〉

7·6 전당대회를 향한 통합민주당의 당권레이스가 점화됐다.

무너진 당의 기반을 일으켜 ‘강한 대안야당’을 재건할 당 대표 자리를 놓고 정치일정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점이 세대결의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.

일단 경선구도는 정세균, 추미애 의원과 정대철 삼일교본간 3파전으로 압축된 상태이다. 낮은 당 지지율에다 스타급 인물과 이슈의 부재로 흥행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경선의 긴장도와 흥미를 더할 변수는 적지 않다.

◇당심 대 민심=이번 경선에서 가장 주목되는 관전포인트는 ‘당심 대 민심’의 대결이다. 당내 조직기반이 강한 정세균 의원이 대세론을 굳혀나 가느냐, 아니면 일반 여론지지를 얻어 선두를 달리는 추미애 의원이 바람몰이에 성공하느냐 하는 것이다.

여론조사 전문가 리얼미터가 민주당 대표로서 적합한 인물을 조사해 10~1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추미애 의원이 15.1%를 기록, 8.1%에 그친 정세균 의원을 앞섰다. 정대철 고문은 5.3%를 기록했다.

정 의원은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대세론을 확산시키면서 일반 여론지지를 동반 상승시켜 나간다는 전략인데 반해 추 의원은 높은 대중성을 등에 업고 전국 투어를 시도할 경우 당심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일정한 당내 기반과 대중성을 갖춘 정 고문의 세화산 여부도 주목된다.

◇秋-鄭 단일화 성사=경선구도의 최대 변수는 추 의원과 정 고문의 단일화가 꼽힌다. 초반 대세몰이에 나선 정 의원에 맞서 추 의원과 정 고문



통합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추미애(왼쪽에서 세번째) 의원이 17일 출마선언식 및 후원회 개소식에서 원혜영(왼쪽에서 네번째) 원내대표 등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. /연합뉴스

■막 오른 민주당 경선 관전 포인트는

秋-鄭 단일화...구 민주계 선택도 관심

이 ‘연합군’을 형성할 경우 파괴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분석이다.

추 의원은 당내 기반이 약하지만 높은 대중성이 강점이다. 반면 정 고문은 대중성이 약하지만 오랜 정치경험으로 당내 기반이 두텁다. 한 당직자는 “추 의원의 대중성과 정 고문의 조직력을 합치면 승수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 양측은 단일화 여부를 모색 중이다.

◇‘간판교체론’ 영향 미칠까=경선의 핵심화두중 하나는 ‘간판교체론’이다. 열린우리당, 통합민주당, 통합민주당으로 이어지면서 당의 전면에 포진했던 인물들을 교체할 것이

나, 아니면 ‘검증된 리더십’을 갖춘 인물을 앞세워 당의 안착을 시도할 것 이냐의 논란이다.

일단 추 의원은 열린우리당 마지막 지킴이를 자처했던 정 의원을 겨냥해 ‘기득권 세력’이라고 비난하며 당의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 정 고문은 “도로 열린우리당으로 가려고 하느냐”며 “우리당 중추세력이 전면에 배치되면 국민들은 과거와 전혀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”고 공격했다.

이에 대해 정 의원은 2005년 원내 대표 시절 사학법 개정안을 일사불란하게 처리했던 전력과 2007년 당의장

시절 대통령 과정에서 보여준 검증된 리더십을 강조하며 ‘변화와 도약’을 화두로 내걸었다.

◇구 민주계 ‘캐스팅보트’= 호남에 기반을 둔 구 민주계가 경선에서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이 적지 않다. 전대 투표를 가진 대의원의 30%가 구 민주계에 배정됐기 때문이다. 이에 따라 경선이 접전양상으로 진행될 경우 구 민주계의 선택에 따라 경선의 판도가 크게 좌우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. /연합뉴스

호남 출신 與의원 릴레이 인터뷰 순천 출신 서울 성동을 김동성 의원

“광주 문화중심도시·J프로젝트 적극 협력 확 바뀐 한나라당, 호남민이 받아 줬으면”

“한나라당도 더 노력하겠지만 호남민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줬으면 합니다.”

한나라당 김동성(성동 을)의원은 17일 “지역감정 때문에 인적자의 배분이 왜곡되고 있다”며 이 같이 말했다.

김 의원은 “호남에서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이유는 5·18에 대한 기억과 김대중,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결 구도에 따른 것”이라고 분석한 뒤 “한나라당은 더 이상 민정당, 민자당의 후신이 아니며 김영삼(YS) 당도 아니다. 인적 구성이 완전히 바뀌었다”고 주장했다.

이런 이유로 더 이상 호남지역 민들이 한나라당을 싫어해서는 안되며, 한나라당도 경상도당의 오명을 벗기 위해 호남에 비례대표를 확실히 배정하는 등 더 이상



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.

김 의원은 “망국적 지역 감정 해소를 위해 지난

2006년 한나라당 청년위원장을 할 때 김대중, 김영삼 전 대통령을 찾아 뵙고 화해를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실패했다”고 일화를 소개한 뒤 “앞으로도 지역 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”고 약속했다.

그는 나아가 “나주혁신도시 건설,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, J프로젝트, F1 사업 등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”며 “특히 F1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될 것으로 확신한다”고 말했다.

김 의원은 “소의 계층을 돕고 국

가의 시스템을 정비하는 법안을 만드는 의원이 되고 싶다”며 ▲이혼 여성에 대한 자녀 양육비 지원 ▲군인사 시스템 정비 ▲국가 위기 관리 등의 제도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.

김 의원은 순천 출신으로 5세 때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사했으나 아직 고향에 선선이 있고 사촌 형제들이 살고 있다고 전했다. 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약력 ▲1971년 순천시 별량면 마산리 출생 ▲서울대 법대 졸업 ▲인천지방법원 판사, 변호사 ▲SBS ‘솔로몬의 지혜’ 고정 출연 ▲한나라당 청년위원장

민주 최고위원 경선...계파간 대리전 되나

구 민주계 박주선·김민석·정균환

386 송영길, 정동영·김근태계 문학진

통합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이 당내 지분확대를 향한 계파간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.

전당대회 대의원의 30%를 확보, 단일계파로는 최대규모로 부상한 구 민주계에서는 박주선 의원과 김민석, 정균환 최고위원 등 3명이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지며 세를 과시했다.

김·정 최고위원은 구 민주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신낙균·김효석 의원을 각각 선대위원장으로 내정했으며 박 의원은 수도권 출신 중진들을

대상으로 선대위원장을 물색 중이다.

386그룹 좌장 격인 송영길 의원은 4·9 총선에서 약진한 순화규계의 대표선수격으로, 소장계파의 지원도 받고 있으며 캠프 구성과 관련해 각 계파 인사들을 상대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.

재야와 출신으로 지난해 대선후보 경선 당시 정동영 전 통일장관 캠프에 합류했던 문학진 의원은 정 전 장관과 김근태 전 의원을 캠프 상임고

문으로 위촉, 위촉된 김근태계와 정동영계의 부활을 노리고 있다.

관료그룹의 지원사격을 받는 수도권 출신의 김진표 의원은 충청권 또는 호남권 중진을 염두에 두고 선대위원장 영입을 추진 중이며 개혁그룹의 문병호 전 의원은 충청배 의원을 상임고문으로, 이종걸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.

이상수 전 노동부장관과 안희정씨는 친노그룹이 주요 지원부대, 이 전 장관은 선대위원장에 정영달 전 의원을 위촉했다.

이번 최고위원 경선이 ‘컷오프’(예비경선) 없이 1인2표제 방식으로 치러지다 보니 지역간, 계파간 ‘짜깁기’ 움직임도 가시화될 전망이다. /연합뉴스

손학규-원혜영 ‘정면 충돌’

孫 “조기 등원”에 元 “지도부에 맡겨라” 반발

국회 등원론을 둘러싸고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 사이에 미묘한 갈등기류가 조성되고 있다.

원혜영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국회 등원을 주장하는 손학규 대표에게 작심하고 문제를 제기했다.

원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“등원전락은 6·3 의원총회와 6·4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 지도부에 맡겨져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”고 주장했다.

이는 등원과 관련한 원내 전략의 소관이 당 대표가 아닌 원내대표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손 대표의 조기 등원론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.

등원 문제는 원내대표단이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할 사안인 만큼 당 대표가 마치 바람몰이 하듯 등원을 밀어붙이는 것은 ‘월권’이라

는 사인을 보냈다는 분석이다.

최인기 정책위의장도 이날 “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강하게 재협상을 요구하는 길 밖에 없다”며 “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국회 개원과 등원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”고 원내대표에 힘을 보탰다.

원 원내대표는 최근 손 대표가 독단적으로 등원 논의를 주도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그러나 원 원내대표측은 등원 논란을 계기로 손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방식의 확전은 경계하고 있다.

민주당 관계자는 “손 대표가 충분한 등원과 관련, 당내 공감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오버한 측면이 있다”며 “그러나 이번 일로 손 대표와 원 원내대표의 갈등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 /임동욱 기자 tuim@kwangju.co.kr

민주 영남권 4개 시·도당

“전당대회 불참”

통합민주당 영남권 4개 시도당이 17일 전당대회 대의원 선정 방식에 반발, 전대 보이콧을 선언했다.

대구, 울산, 경북, 경남 등 부산을 제외한 민주당 영남권 시도당위원장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“대의원 배정과 지역위원장 선정에서 의도적으로 영남이 축소돼 전대 보이콧을 결정했다”고 밝혔다.

이들은 “선출직 대의원의 40%를 총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, 호남의 인구 1명당 대의원 비율이 영남보다 11배나 높게 됐다”며 “이는 의도적으로 영남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수도권과 호남의 담합결과”라고 주장했다.

이들은 또 “신청자가 있었음에도 당이 23개 영남지역을 사과위원회(지역위원장이 없는 곳)로 지정, 지역위원장이 있는 곳의 50%만 대의원을 배정키로한 것도 영남의 존립근거를 부정한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/연합뉴스

미용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와 함께

광주 성형외과개원의 협의회

- 신민회 성형외과: 대표 김근태, 문민석
- 성형외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광주성형외과개원의 협의회
- 김동성 성형외과: 대표 김동성
- 김민석 성형외과: 대표 김민석
- 류동수 성형외과: 대표 류동수
- 국영리 성형외과: 대표 국영리
- 제디빌 성형외과: 대표 제디빌
- 박동규 성형외과: 대표 박동규